

남아공 최근 경제동향 및 현지 반응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관련 주요 경제지표 점검]

(2013. 8. 27)

남아공 주재원

1. 주요 경제지표 동향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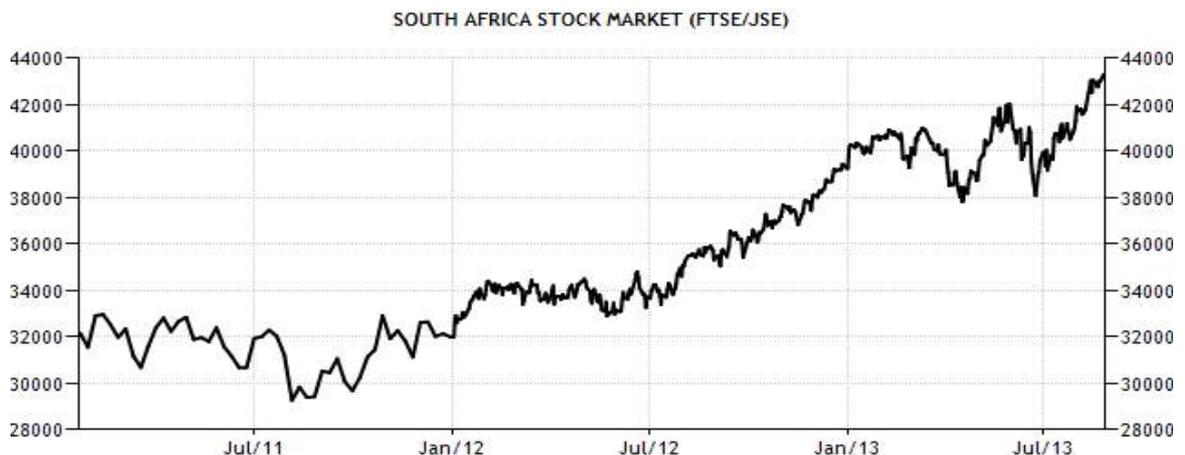
□ 2012년 하반기 이후 5.0% 유지

- 경기둔화로 인해 20개월만인 2012. 7월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0bp 낮춘 이후 물가안정 목표치(3%~6%) 등을 고려, 현재까지 5.0% 유지

주 가

□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과 달리 주식시장은 호조세 지속

-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 지수는 신흥국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며, 8. 26일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43,290.55) 기록
-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비중(16%, 약 2.8억불)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국인 거래패턴 변화에 의한 주가 급등락 가능성은 비교적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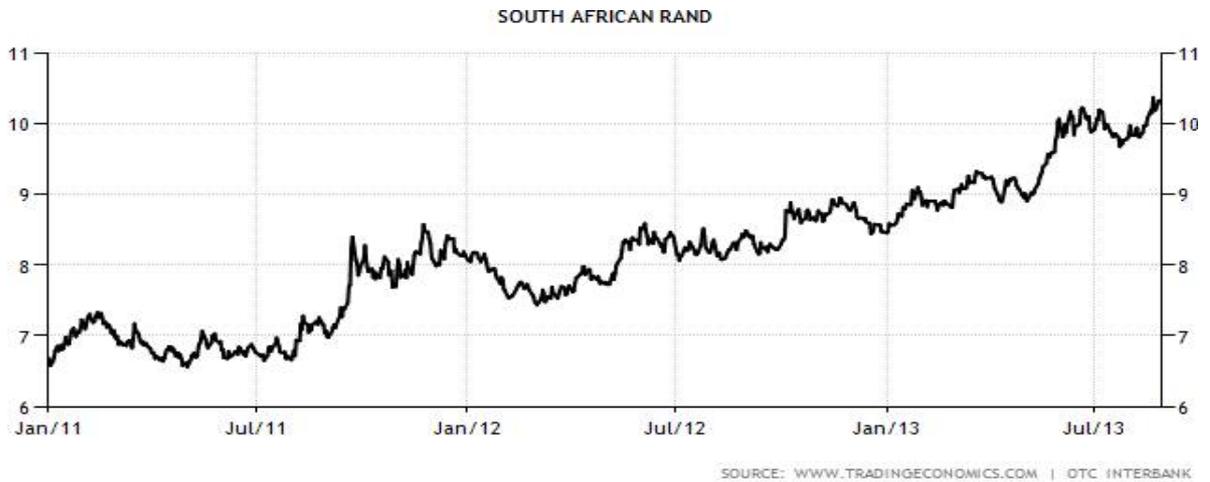


SOURCE: WWW.TRADINGECONOMICS.COM | JOHANNESBURG STOCK EXCHANGE

환 율

□ 2011년 이후 미달러 대비 랜드화 가치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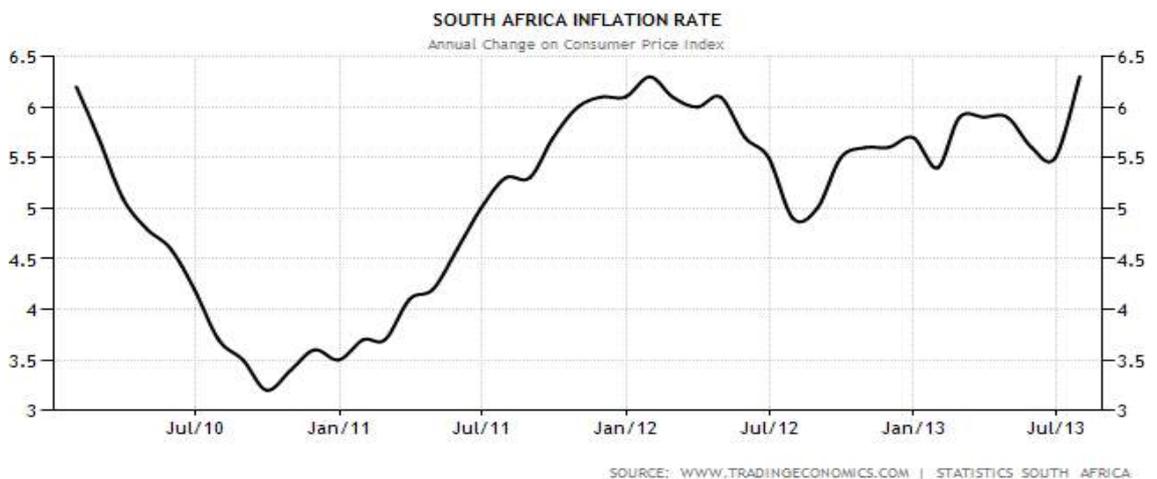
- 2003년부터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 광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의 노사 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랜드화 약세 지속
- 특히, 8. 27일 달러당 10.4363까지 올라 2009. 4월 이후 최고치 기록



물 가

□ 6% 선에 머물던 물가가 금년 하반기 7% 까지 오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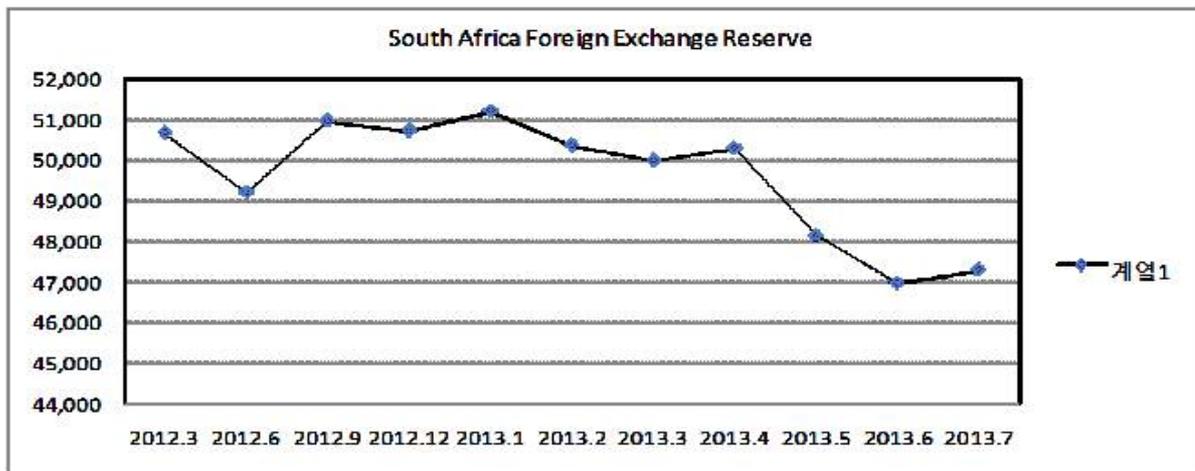
- 한때 3% 초반까지 떨어졌던 물가가 2011년 이후 본격화된 랜드화 약세 등과 함께 최근 2년간 5~6.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외환보유액

□ 남아공 월평균 수입액의 약 6배, IMF 기준의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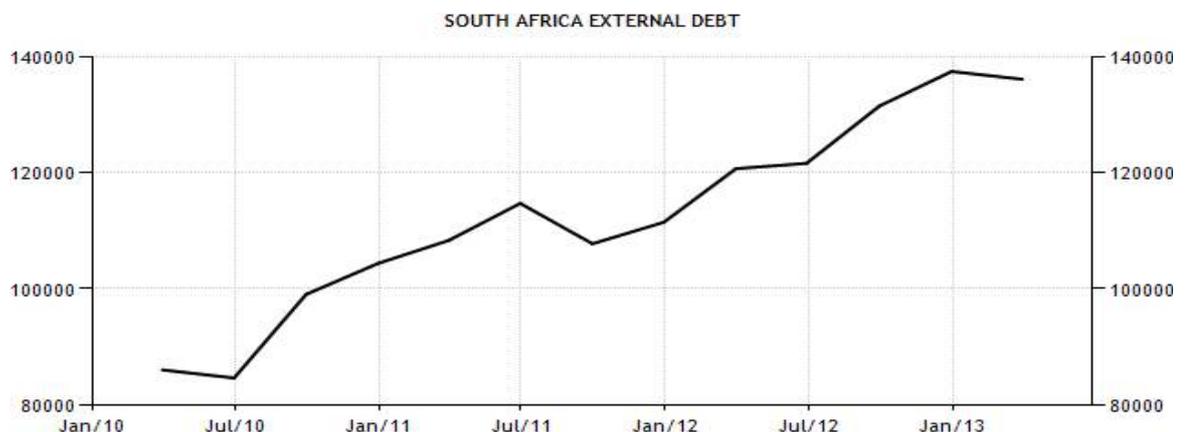
- 2013. 7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473.2억불로, 2013년도 남아공 월평균 수입액의 약 6배 수준 (IMF 기준은 월평균 수입액의 3배 이상)
- 2013년 들어 외환보유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정부부채

□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

- 2013. 3월 현재 정부부채 규모는 1,361.8억불로, 2012년 GDP(3,412.1억불, 추정) 대비 39.9% 수준이며, 단기외채 비중도 50% 미만으로 남아공 정부의 관리가 가능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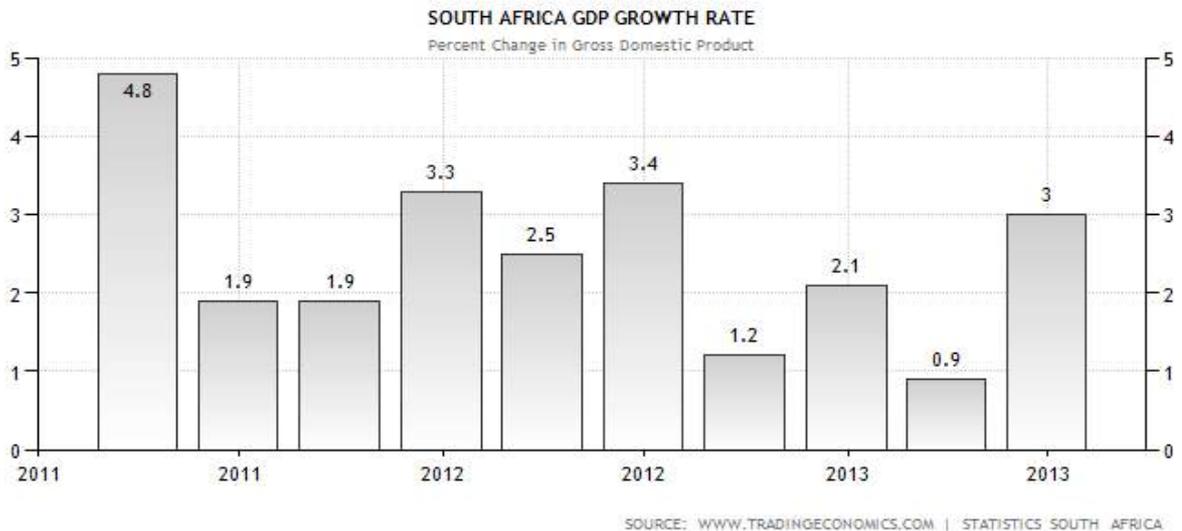


SOURCE: WWW.TRADINGECONOMICS.COM | SOUTH AFRICAN RESERVE BANK

경제성장률

□ 2013년 2분기 GDP 성장률 3.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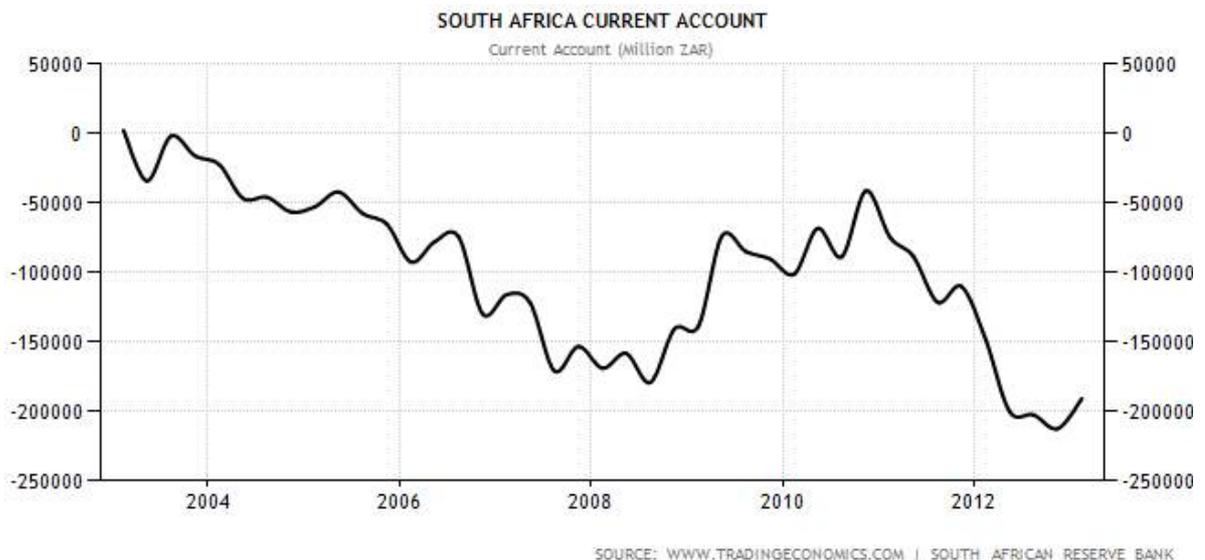
- 2013년 1분기 GDP 성장률이 0.9%를 기록,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3.0% 성장하면서 예년수준 회복



경상수지

□ 주요 원자재 수출액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3년 2분기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추세가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GDP의 6.3% 수준



2. 현지 반응 및 정부 대응방안

현지 반응

□ 단기 악영향은 예상되나, 조만간 안정세 회복 기대

- 현지 언론 및 경제전문가 등은 랜드화 가치하락과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신흥국 위기가 남아공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추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최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자동차·건설·공항부문 노조 등의 동시다발 파업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남아공의 경제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 남아공이 경제위기 후보국 중 하나라는 외부 시각과 달리, 남아공 내에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 유지

대응방안

□ 남아공 정부, 투자·정부지출 확대 및 교역활성화 등 추진

- 남아공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보다는 기존대로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목표로 투자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할 방침
- 또한,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해 아프리카 전체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한다는 계획
- 남아공 재무장관은 8. 26일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신흥국 위기 해소를 위해 선진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
- 한편, 남아공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 기존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

참고**한-남아공 교역 현황****1. 교역 현황 일반**

- 2012년 양국 무역규모 43.2억불('11년 53.6억불, 19.4%↓)
- 2011년 대비 수출(21.9억불, 3.0%↓) 및 수입(21.3억불, 31.4%↓) 감소
- 무역수지는 2007년 적자 전환 이후 첫 흑자(0.6억불) 기록

(USD 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수출	1,794	1,753	1,397	1,082	1,668	2,256	2,188	954
수입	1,385	1,767	2,159	1,172	2,272	3,105	2,129	568
무역규모	3,179	3,520	3,556	2,254	3,940	5,361	4,317	1,522
무역수지	409	△14	△762	△90	△604	△851	59	386

2. 주요 수출입 품목

(USD 백만)

순위	수출품목	2012	증감율	수입품목	2012	증감율
1	승용차	723	△21.3	철광	406	△21.1
2	경유	263	133.8	유연탄	339	△11.2
3	건설중장비	110	18.7	합금철	330	△5.0
4	화물자동차	85	19.5	백금	275	△56.0
5	자동차부품	78	84.1	동괴	224	△24.2
6	합성수지	60	△30.9	알루미늄괴	109	△38.5
7	인쇄용지	59	14.5	기타금속	104	2.3
8	평판디스플레이	39	15.6	아연광	36	-
9	아연괴	46	381.6	화학원료	31	25.3
10	타이어	26	35.7	비금속광물	25	△23.2
전체	-	2,188	△3.0	-	2,129	△31.4